

Readers are Leaders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 중학생용 -



CONTENTS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일러두기	<u>03</u>
자기소개	<u>04</u>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u>05</u>
활동 메모	<u>06</u>

01.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u>08</u>
02. 소셜미디어, 너의 이름은?	<u>10</u>
03. 디지털 시대, 기사 똑똑하게 읽는 법	<u>12</u>
04. 진짜 같은 가짜 뉴스	<u>14</u>
05. 디지털 격차	<u>16</u>
06. 지켜라! 소중한 개인정보	<u>18</u>
07. STOP! 사이버 괴롭힘	<u>20</u>
08. 온라인 소통 도구, 댓글	<u>22</u>
09. 차별과 혐오는 랜선을 타고	<u>24</u>
10. 디지털 세상의 또 다른 나	<u>26</u>
11. 따뜻한 디지털 세상	<u>28</u>
12. 디지털 세상, 디지털 민주시민 되기	<u>30</u>

VISA (확인서)	<u>33</u>
------------	-----------

일러두기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 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5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	 news 1 https://www.news1.kr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매일경제 https://www.mk.co.kr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스포츠서울 https://www.sportsseoul.com	 스포츠조선 https://www.sportschosun.com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co.kr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江原日報 http://www.kwnews.co.kr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	 경북매일 http://www.kbmaeil.com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	대구일보 http://www.idaegu.com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每日新聞 https://news.imaeil.com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	 영남일보 https://www.yeongnam.com
 울산매일 https://www.iusm.co.kr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	 全羅日報 http://www.jeollailbo.com	 전북도민일보 http://www.damin.co.kr
 全北日報 http://www.jjan.kr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충청투데이 https://www.cctoday.co.kr		

나의 활동 메모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문장 소감	확 인

01.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디지털 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는 우리 일상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만나봅시다.

 아래 칼럼은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잘파세대’에 대해 소개합니다. 잘 읽어보고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 매일경제 Citylife 제900호 2023년 10월 17일 4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잘봐, 잘파세대 온다!

(중략) 스마트폰과 패드를 보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고, 화면을 쓸어 넘길 줄 안다. 식사 시간에 가끔 시청하게 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재생한다. 그에게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이들을 일컫는 ‘알파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있던 세대의 위치 조정을 필요하게 한다. 이제 밀레니얼인 M은 X세대 쪽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Z세대는 알파세대와 한 데 묶인다. 이렇게 우리는 이들 Z세대와 알파세대를 ‘잘파(ZALPHA)’세대라 칭한다.

(중략) 이 새로운 구분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있다.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다. 밀레니얼은 아날로그 시대의 끝자락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했다. X세대인 내가 인생의 2/3를 아날로그로, 현재까지의 1/3 인생을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체득하며 살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잘파세대는 오롯이 디지털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밀레니얼은 아날로그 시대의 끝자락을 경험하면서 디지털 시대를 맞았지만 잘파세대는 오롯이 디지털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중략) 아주 오래 전에는 TV 프로그램조차 24시간 방영되지 않았다. 자정 정도 되면 화면 조정 시간이 되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했었다. 그러니 광고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조차 한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24시간 내내 TV 속 수백 개의 채널이 돌아가고, 각종 플랫폼에서는 수없이 많은 콘텐츠와 브랜드 광고들이 빼



꼭하게 채워진다. 새로운 세대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잘파세대는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자라왔고, 자라고 있는 세대다.

(중략) 잘파세대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진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은 긴 것 자체를 인내하지 못한다. 무조건 짧아야 한다. 그런데 이목을 집중시켜야만 한다. 10초 내외의 러닝타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풀어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주영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칼럼에는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각의 뜻을 정리해 보세요.

– 디지털:

– 아날로그:

 ‘잘파세대’는 어떤 이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갈까요? 잘파세대의 입장에서 이 세대를 소개해 보세요.

안녕? 나는 ‘잘파세대’라고 해.

 요즘 우리 사회는 교육, 의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다룬 기사 중 하나를 골라 스크랩한 뒤, 아래의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각종 매장에 ‘디지털 직원’ 등장, ‘디지털 주민등록증’ 탄생 등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스크랩한 기사에서 다룬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이전 아날로그 시대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을 비교해서 써보세요.

아날로그 시대였을 때	→	디지털 시대일 때

 스크랩한 기사에서 소개한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02. 소셜미디어, 너의 이름은?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라는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란 무엇인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아래 기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잘 읽어보고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서울경제 2025년 2월 9일 인터넷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기사 제목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카카오톡’과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국 성인 3000명의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 4.25개의 SNS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률이 98.9%로 가장 높았으며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 네이버 블로그(2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SNS 이용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 중인 SNS 개수가 많았으며 세대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랐다.

2030 세대에서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다음 인스타그램(20대 80.9%, 30대 70.7%)이 3위를 차지했다. 반면 5060 세대에서는 밴드가 이용률 3위(50대 40.6%, 60대 31.1%)로 나타났다. 또 40대 이하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카카오톡스토리가 상위 10위 안에 꼽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직접 아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이용했고,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은 인플루언서, 유명인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35.9%였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였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공식채널을 이용한다는 응답(63%)보다 개인이나 단체의 시사채널을 이용한다는 응답(63.6%)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언론사의 공식 계정(87.4%)이나 전현직 언론인의 시사채널(63.5%)을 언론이라 생각했다. 개인 유튜브/Blog가 운영하는 시사정보 채널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했다. (중략)



강유리 인턴기자

 소셜미디어란 무엇인가요? 기사를 읽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소셜미디어:

 여러분이 편집기자가 되어 빈칸에 들어갈 기사 제목을 붙여보세요. 참고로 15자 이내로 간결하게 핵심 메시지를 담되, 적절한 선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고민해 보세요.

제목: _____

 위 기사에 나온 통계 자료 중 하나를 골라 아래 그래프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프 그리는 곳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하나를 골라 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 보세요. 신문에 실리는 일러스트처럼, 소셜미디어 화면을 그림으로 함께 표현해 주어도 좋습니다.

기사 쓰는 곳

 여러분이 기사로 소개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소셜미디어 이용 수칙’을 4컷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다면, 온라인상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소셜미디어 채널에 게시해 보고, 관련 QR 코드를 첨부해도 좋습니다.

03. 디지털 시대, 기사 똑똑하게 읽는 법



아날로그 시대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채널에서 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접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정보를 접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디지털 시대에 기사를 똑똑하게 읽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다.

신문과 관련한 용어 중 ‘편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편집’이란 신문의 내용을 손질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배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종이 신문과 온라인 신문은 편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을 잘 읽어보고, 두 신문의 편집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빈칸에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해 보세요.

<참고 사항>

- 종이 신문: 면수가 정해져 있고, 면마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종이책처럼 넘겨 읽는 방식이라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면에 여러 개의 기사가 실리는데 각 기사는 비중(분량)이 다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문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문: 종이 신문과 달리 면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이 신문처럼 순서대로 넘겨 읽는 방식이 아닌, 독자가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골라 읽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사진, 영상 자료 등이 기사 안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종이신문

온라인 신문

종이 신문과 온라인 신문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표에 정리해 보세요.

종이 신문		온라인 신문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온라인 신문의 문제점으로 ‘낙시성 제목’을 손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낙시성 제목’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고, 낙시성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

– 낙시성 제목이란:

– 낙시성 제목이 나오는 이유:

 ‘낙시성 제목’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아래에 스크랩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낙시성 제목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도 간략히 적어보세요.

예)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 선정적인 어휘 등을 쓴 경우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위 제목이 낙시성 제목인 이유

 스크랩 하는 곳

위 제목이 낙시성 제목인 이유

04. 진짜 같은 가짜 뉴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짜 뉴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뉴스입니다. 이는 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가짜 뉴스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사입니다. 잘 읽어본 후, 아래의 관련 활동을 해 보세요.

※출처: 머니투데이 2017년 2월 14일 인터넷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가짜 뉴스? 패러디 뉴스? 오보?... 어떻게 구별할까

(중략) 가짜 뉴스란 좁은 의미로 정치적 혹은 상업적 의도를 갖고 언론사 기사로 오인되도록 만들고 퍼트린 정보를 말한다. 기존 언론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문제시 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은 영어로 ‘디스인포메이션’

(disinformation)의 개념”이라며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기능과 동떨어진 행위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상당히 고도화된 계산을 거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말했다.

(중략)
가짜 뉴스는 패러디(풍자)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소재

나 작가의 문제를 흉내 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짜정보로 분류하진 않는다.

(중략)



강유리 인터넷기자

 ‘가짜 뉴스’, ‘오보’, ‘풍자 및 패러디’는 각각 무엇인가요?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 가짜 뉴스:

– 오보:

– 풍자 및 패러디:

 신문에서 다룬 가짜 뉴스(딤페이크 포함) 사례를 스크랩한 후 해당 가짜 뉴스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피해)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위 가짜 뉴스가 끼치는 영향〉

 온라인 신문을 비롯한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짜 뉴스’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 아래에 스크랩하고, 여러분이 ‘가짜 뉴스 판별 위원회’가 되어 그 정보가 어떤 점에서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팩트 체크를 할 때는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제시한 ‘가짜 뉴스 판별 가이드’ 등을 참고하세요.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제시하는 가짜 뉴스 판별 가이드

1. 출처 확인하기: 해당 뉴스 사이트의 목적이나 연락처 등 확인
2. 본문 읽어보기: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선정적인 제목을 붙였을 수 있으니 본문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
3. 작성자 확인하기: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
4. 근거 확인하기: 주장에 대한 근거, 이유 등이 설득력 있는지 확인
5. 날짜 확인하기: 오래된 뉴스를 재탕 또는 가공한 건 아닌지 확인
6. 풍자 여부 확인하기: 단순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풍자를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인지 확인
7. 선입견 점검하기: 선입견, 고정관념에 치우쳐 있진 않은지 확인
8.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해당 분야 관련자나 팩트 체크 사이트 등에 확인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위 가짜 뉴스가 끼치는 영향>

위 뉴스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경각심을 갖도록 ‘가짜 뉴스 주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포스터 붙이는 곳

05. 디지털 격차



디지털 신문을 비롯한 온라인 매체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이나 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봅시다.

 '디지털 격차'의 의미를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디지털 격차'의 개념을 사전, 도서 혹은 신뢰할 만한 누리집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다음 주제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세요.

주제: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 해결

* 디지털 소외: 기술이나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상태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격차와 소외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세요.

 위 문제 해결의 주체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세요.

	내 용
주체	
방안	

 디지털 격차와 소외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다음 <활동 요령>을 참고하여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 해소'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보세요.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디지털 격차와 소외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세요.



- 현수막에 들어갈 요소를 정한다.
 - * 참여기관/단체 로고, 슬로건, 연락처, 참여방법 등등
- 해결 방안 혹은 목표를 나타내는 문구를 제작한다.
- 이미지, 아이콘, 색상을 활용해 디자인한다.

06. 지켜라! 소중한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린 내 정보, 과연 안전할까요? 이름, 사진, 위치는 물론 내가 클릭한 링크나 검색 기록까지 저장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다음 주제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세요.

주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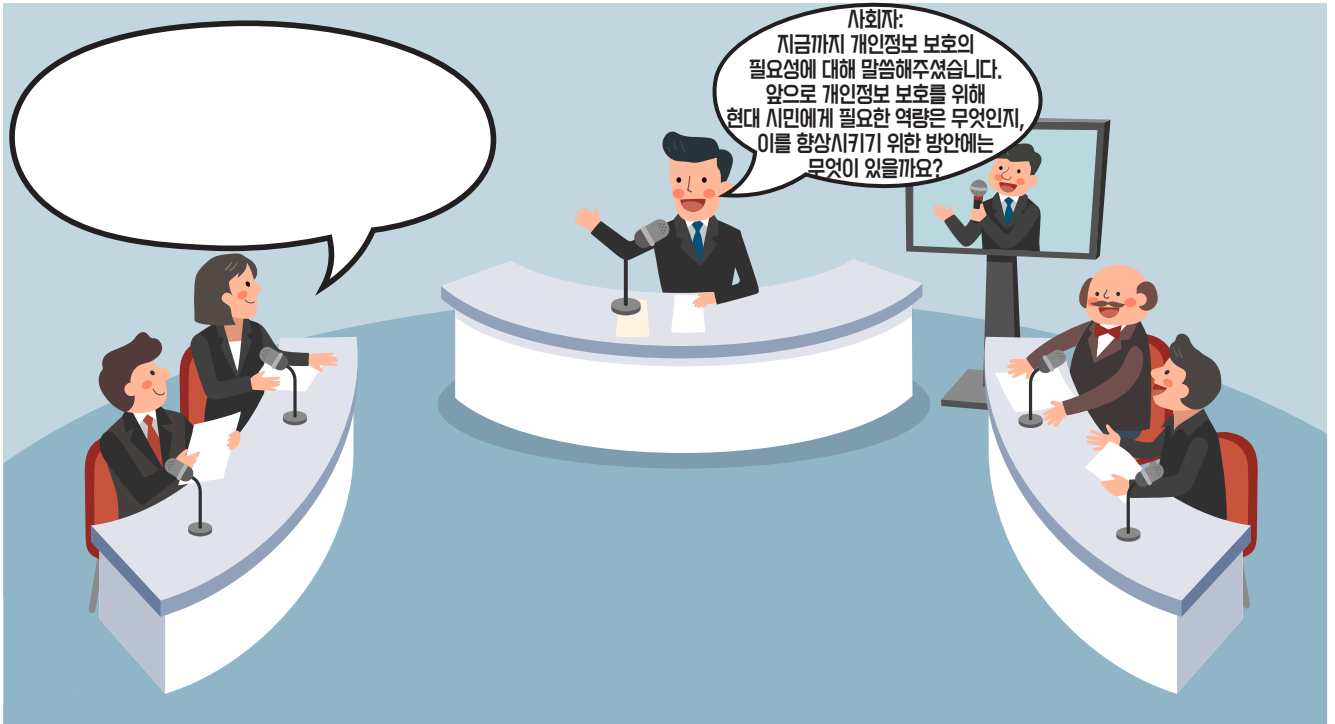
 신문 기사에서 소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적, 국가적 노력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 다음은 TV 인터뷰 장면입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활동 순서>를 참고하여 써보세요.



1. 사회자의 질문 2가지를 이해한다.
2. 답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 빈 말풍선에 2번 활동 내용을 대화체로 작성한다.



📺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천할 <행동 요령>을 제작해 보세요.



- 1) 제목을 쓴다.
- 2)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의 개수만큼 공간을 나눈다.
- 3)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 4) 각 상황과 대처 방안을 이미지로 스케치한다.
- 5) 3번, 4번 활동이 한 공간에 들어가도록 제작한다.

07. STOP!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며, 그 영향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행위를 어떻게 예방하고,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의 의미를 쓰고,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세요.

사이버 괴롭힘이란?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구 분	내 용
가해자	
피해자	
사이버 괴롭힘의 영향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성	
사이버 괴롭힘 실태에 대한 나의 생각	

📰 사이버폭력 발생을 낮추는 요인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문화일보 2025년 2월 12일 9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미디어 이해도 높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위험 46% 낮아”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폭력’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폭력이 ‘도덕적 이탈’(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왜곡된 사고)과 연관된 것으로 봤는데 이는 매체 이해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립암센터 암지식정보센터 이해선 박사후 연구원, 전재관 센터장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중학생 3002명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폭력과 도덕적 이탈이 감소하는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학생은

지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참여 학생의 14.9%는 최근 1년 이내 8가지 사이버 폭력 행동(언어적 폭력·명예훼손·스토킹·상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인 내용 전송·개인정보 유출·괴롭힘·강탈 및 강압) 중 1개 이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했다. 이 같은 역량이 높은 청소년은 서로 다른 검색엔진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의 정보를 평가하고, SNS 등에서 상대방 프로필이 진짜인지 확인하거나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관리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온 사진

이나 전화번호 교환 요청을 거절하고 SNS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행동도 관찰됐다. 수치 상으론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사이버 폭력 위험을 34% 높이는 요인이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은 경우엔 사이버 폭력 위험이 최대 46% 낮았다.

이해선 연구원은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온라인에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이 도덕적 이탈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도영 기자

💡 다음 개념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개념	의미
미디어 리터러시	
도덕적 이탈	

💡 다음 개념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을 검색하여 내게 필요한 방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08. 온라인 소통 도구, 댓글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의견을 댓글로 남길 때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댓글이 긍정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고, 어떤 댓글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온라인에서 선플달기 운동에 참여해 볼까요?

 악성댓글을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 공간에서 악플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그 이유를 써봅시다.

 악성댓글 피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세요.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신문 기사를 읽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악성댓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선물을 달자'는 취지의 온라인 에티켓 포스터를 제작해 보세요.

* 선물: 온라인에서 만드는 착하고 아름다운 댓글을 말함.



1. 포스터에 담을 요소를 정한다.(주최, 이미지, 문구 등)
2. 전달하려는 메시지(문구)를 작성한다.
3. 1번 활동 요소를 활동 란에 적절히 배치한다.
4.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아 포스터를 디자인한다.

 Username 2

온라인 에티켓 포스터 활동 공간

 10 540

Show all comments (301)

2 HOURS AGO

09. 차별과 혐오는 랜선을 타고



디지털 세상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표현은 디지털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염된 디지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다음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서울경제 2019년 2월 1일 5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⑧ · 끝-사회] 편견→차별→범죄 연결...사회적 규제로 '혐오의 피라미드' 없애야

■ 갈등·혐오 치단은 사회-전문가 진단

학교 등서 시민교육·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규제 효과 높이려면 차별금지법 만들어 피해 막아야
美선 종교·인종·출신국 이유로 차별 땀 최대 징역1년

김지영 · 오지현 기자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청소년들의 82.9%가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다음 표를 작성해보세요.

혐오 표현 경험 장소 통계	자신이 경험한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을 듣거나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 출처: 국민일보 2019년 8월 28일 1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청소년 혐오 표현 경험 장소 온라인 82.9 학교 57.0 학원 22.1 집 13.1 방극렬 기자		

이 기사를 참고하여 디지털 세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해법을 정리해 보세요.

📖 차별과 혐오 표현에 관한 아래의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6월 28일 2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혐오’는 남의 일? 함께 ‘대항표현’ 만들어봐요

미디어 속 차별·혐오 살펴보는 수업들
혐오표현에 맞서는 프로젝트 수업
‘나’ 인식한 뒤 ‘타인’ 이해하게 돼
영화 통해 ‘대항 내러티브’ 만들고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는 과정 살펴봐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아니죠”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 ‘피해자 입장은?’ 등 차별·혐오표현 현상을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질문을 학생들 앞에 던진다. “아무리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해도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침범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범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틀딱충’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억울할 것” 등 학생들은 생각을 정리하며 대항표현 및 대항짤을 만들어본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시대에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 대항표현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해보는 과정이다. 최 교사는 “차별·혐오의 반대말은 ‘평등’ 혹은 ‘애정’이 아닌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와 다른 타인, 사회적 소수자와도 소통하려는 민주적인 자세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청연 기자

💡 이 기사에서 인상 깊은 문장 세 개를 골라서 옮겨 적고, 고른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인상 깊은 문장 세 개 옮겨 적기	고른 이유

💡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세요.

💡 기사에 소개된 ‘대항짤’입니다. 이를 참고로 디지털 편견·혐오에 대한 대항짤을 만들어 보세요.



* 짤: ‘짤’은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짧은’이라는 의미의 ‘짧다’에서 유래한 말임.

10. 디지털 세상의 또 다른 나



사람의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엄마를 대할 때의 얼굴, 친구를 대할 때의 얼굴은 다르며, 선생님을 대할 때의 얼굴과 낯선 사람을 대할 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 자아로 성장하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로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번 활동을 통해 메타버스 속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보세요.

다음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매일경제 2022년 11월 28일 인터넷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메타버스서 디지털 범죄 막는다...윤리원칙 발표

안전경험, 지속번영은 인터넷과 유사
메타버스와 현실 간극 해소해줄
‘온전한 자아’ 개념 추가돼 눈길

나현준 기자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다음 표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정리해 보세요.

안전한 경험 Safe Experience	
지속가능한 번영 Sustainable Prosperity	
온전한 자아 Sincere Identity	

위 기사와 다음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가 중요한 이유를 써 보세요

※ 출처: 한국경제 생글생글 2018년 8월 20일 21면.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자기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온라인 속 ‘페르소나’

김수현 생글기자



온전한 자아(Sincere Identity)가 중요한 이유

다음 기사를 찾아서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한겨레신문 2021년 10월 11일 16면.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제2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메타버스 속 ‘나’를 그리다

가상현실로 간 현대미술
코리안미술관 ‘프로필을 설정...’
광주시립미술관 ‘메타-가든’전

노형석기자



기사에 언급된 작품 'KIN거운 생활'을 시청하고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기사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안가영 작가의 머니시마 영상물(캡처)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메타버스 속 나의 페르소나를 그린 뒤, 그 페르소나를 소개해 보세요.

나의 페르소나

소개하기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를 찾아 읽고, 빈칸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 출처: 서울경제 2023년 10월 5일 인터넷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당신의 디지털 페르소나는 안녕하십니까



정남진 시니어 소셜미디어 마케터

기사에 제시된 7가지 체크리스트 중 2번부터 4번까지를 점검해 보세요.

번호	나의 디지털 페르소나 점검하기(이유와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2	
3	
4	

11. 따뜻한 디지털 세상



디지털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디지털 세상은 더 따뜻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벽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때 이 세상이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따뜻한 디지털 세상에 대해 알아보까요?

다음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세요

※ 출처: 동아일보 2023년 3월 2일 인터넷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디지털 취약 해소할 배리어 프리 · 인공지능 키오스크 나온다

차주경 기자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하드 · 소프트웨어 제작 기준을 요약해 보세요.

기사를 참고하여 디지털 배리어프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세요.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의 말 중 ‘기술은 편익을 주지만 때론 차별을 만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쓰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작성해 보세요.

다음 뉴스 기사를 찾아서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세요.

※출처: 한겨레신문 2024년 8월 16일. 동영상 원본은 QR코드 참고

[영상] 처음 보는, 웃는 유관순의 만세...“눈물이 난다”

인공지능 활용 광복절 콘텐츠 화제

주성미 기자



이 기사 또는 기사에서 언급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하고, 디지털 AI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인쇄하여 붙여 보세요.

독립운동가 이름			

이 기사 또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중 마음에 드는 댓글을 적어 보세요.

예시	가슴이 뭉클하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AI는 이렇게 써야지. 이게 기술이지.
1	
2	
3	
4	
5	

12. 디지털 세상, 디지털 민주시민 되기



디지털 세상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검증되지 않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익명성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자기가 창작한 것처럼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짓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검증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는 올바른 디지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머니투데이 2023년 12월 28일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경기도 중·고교생 76.5% "디지털 시민교육 필요하다"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의 76.5%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중략) 조사에 참여한 경기 중고등학생 30.7%가 학습할 때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자료 검색과 수집(76.3%)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인터넷 학습 영상 시청(55.5%) △패들렛 같은 협업 도구 활용(41.6%) △문서 작성(15.8%) △프로그래밍(10.8%)을 차례로 꼽았다.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을 묻는 설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30.6%)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정보·콘텐츠의 관리와 활용(23.7%)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17.5%)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자아정체성 확립(17.4%) △디지털 창작 및 향유(6.1%) △디지털 시민 참여(4.7%) 순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디지털 윤리(41.0%)가 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을 묻는 설문에 중학생은 교과 시간(43.9%), 고등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55.0%)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디지털 시민교육 방법은 매체(미디어, 영상) 활용 수업(69.3%)에 이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체험교육(54.0%)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46.4%) △토의 토론 수업(29.5%)을 선호했다. 이와 관련해 중고등학생 61.9%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현수 기자

이 기사의 통계를 그래프로 그려 보세요.

디지털 기기 활용 활동	디지털 시민의 필요 역량	가장 중요한 디지털 시민 교육 내용

💡 디지털 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세요.

📰 다음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세요.

※ 출처: 동아일보 2023년 3월 9일 23면 기사.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잘 쓰면 득, 잘못 쓰면 독... AI 윤리기준-한계 함께 가르쳐주세요

초등생 올바른 AI 활용법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 소양' 포함... 인간에 도움 주지만 의존은 금물

알고리즘 오류 땀 오답 내놓거나 인종차별 등 편향적 발언 하기도

무분별한 수용 대신 근거 따지고, 개인정보 입력 땀 필수적 정보만

조유라 기자



👉 신문 스크랩 붙이는 곳
크기가 클 때는 접어서 붙이세요.

출처 □ 종이신문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면
□ 인터넷 뉴스일 경우 : ()일보(신문) ()년 ()월 ()일 ()시 ()분

💡 AI가 '양날의 검'인 이유를 찾아서 써보세요.

💡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최고 가치와 기준을 찾아서 써보세요.

💡 생성형 AI(Chat GPT)를 활용하여 '디지털 민주시민 선언문'을 작성한 후 이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세요.(카드뉴스를 인쇄하여 아래에 붙이기)

AI를 활용하여 초안 작성→검증→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수정→완성 후 카드뉴스 만들기

VISA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MEMO

MEMO

발 행 일 | 2025년 6월 5일
지 은 이 | 홍근태 인하대사범대부속중학교 교사
최지성 동북중학교 교사
김청연 전 한겨레 매거진 랩팀 기자
발 행 인 | 임채청
편 집 인 | 정우현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 화 | 02-733-2251~2
팩 스 | 02-720-3291
홈 페이지 | www.presskorea.or.kr
주 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